

한 · 일간에 있어서의 「着点명사+이동동사」의 고찰

全 成 龍*

目 次

- 0. 들어가며
 - 1. 장소를 나타내는 名詞(場所名詞)와의 결합
 - 2. 사람을 나타내는 名詞(사람名詞)와의 결합
 - 3. 사물을 나타내는 名詞(사물名詞)와의 결합
 - 4. 마치며
-
-

0. 들어가며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가 사람과 동물 또는 사물의 移動을 나타내는 動詞(移動動詞라고 칭함)가 명사와 결합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그 표현되는 방법이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명사가 이동동사의 着点を 나타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일본어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소를 나타내는 名詞(場所名詞)와의 결합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移動動詞가 着点を 나타내는 場所名詞와 결합할 때에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표현방법이 모두 동일하게 「場所名詞+助詞+移動動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例1; “학교 기숙사로 가서 잘텐데, 문 닫을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야요. 여간 규칙이 엄해야죠. 시간이 급해서 사감한테 말도 못 하고 나왔는데요.” (상록수)

例2; “정란아! 나 물 좀 줘. 정말 오늘 이 병원에 오느라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 다녔다.”

“점심도 못 먹었니?”

“점심이 다 뭐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다니까!”

“그래?” (국화꽃 향기)

例3;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성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나도 중환자실에 두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별거벗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하룻밤과 이틀밤을 지내고 다시 일반 병실로 돌아왔죠. (가시고기)

例4;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서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21절)

例5;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1~2절)

例6; 「そうよ。それで二人が切れたら、いいじゃないの」

「そう簡単じゃないわ。一度約束の場所に来なかったぐらいで、やめるなんて……」

「相手はどんな男?」

「梶川真治。四十四歳。K商事常務」

「——調べたの? 凄い!」

「日曜日にね、もう一度Pホテルに行ったの。あのレジの女の人がいたから、昨日の方にお礼を言いたいけど、何という方がわかりますか、って訊いたわけ」

「年齢まで分かったの?」 (早春物語)

例7; (さあ、存じません。お義兄(にい)さまは姉から何か聞いてらっしゃると思ってましたわ)

(なにも聞いてないな。英子が家を出かけるとき、美弥ちゃんはもううちに来てくれていたんだね。そのとき、英子はどこに行くと言って出たの?)

(どこといって別に。ちょっと銀座に行き行って買いものをするけど、それから知った先に寄ってくると言っていましたわ。それがどこか姉も言わなかったし、わたしもべつに訊きませんでしたから) (聞かなかった場所)

例8; このときから、イエスは御自分が必ずエルサレムに行き、長老、祭司長、律法学者たちから多くの苦しみを受けて殺され、三日目に復活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弟子たちに打ち明け始められ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21節)

例9; イエスは、ヘロデ王の時代に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お生まれになった。そのとき、占星術の学者たちが東の方からエルサレムに来て、言った。「ユダヤ人の王としてお生まれになった方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わたしたちは東方でその方の星を見たので、拝みに来たので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2章1~2節)

例10; 「局長がその気なら実現できないことはないね」

「どうだす、浅井さんが今度もお供して神戸に来やったら?」

「ぼくがね? しかし、この前に随行したばかりだからな。次は違う人が行くだろう。あとはほかの係長もいるし、課長補佐もいるし、課長もいるし……多土 濟々だね」 (聞かなかった場所)

2. 사람을 나타내는 名詞(사람名詞)와의 결합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移動動詞가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에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한국어는 그 표현 방법이 「사람名詞+助詞+移動動詞」로서, 移動動詞가 場所名詞와 결합할 때와 동일하지만, 일본어는 그 표현방법이 「사람名詞+(場所를 나타내는) 形式名詞+助詞+移動動詞」로서, 移動動詞가 場所名詞와 결합할 때와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例11; “태어나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삼순이 취급받는 거 정말 싫증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에게서까지 삼순이 취급받곤 못 살아요! 이 계약 내 쪽에서 파기하겠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 때는 덕한테 꾸

는 것 이외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요 며칠 다시 생각해 보니
 까 수단과 방법만 가리지 않으면 그 정도의 금액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내 장기라도 팔아서 그 5천만원 덱한테 돌
려드리죠.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例12;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엄만 그 사람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다니다 말고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소돔같은 거리에)

例13; 내일 프레이드가 LA로 떠나고 멕시코 가정부도 온다면 나는 내 할
 일을 찾아서 그리운 최자실 목사님에게로 가리라.

(소돔같은 거리에)

例14;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
 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
 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마태복음27장57~58절)

例15; ‘설마 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러진 않겠지?’

그러나 이 요괴라면 모르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 상상하기도 두렵다. 그래서 삼순은 재빨리 남자에게 다가갔다.

(내 이름은 김삼순)

例16;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
 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태복음15장1~2절)

例17; 「どちらにしても、あたしそのうち、必ず専務さんの所に、あなたのことをいいに行
 くわ。あたし、自分があなたの慰みものになったなんて思うの、耐えられない
 の。結婚するっていったからゆるしたのに……」 (広き迷路)

例18; そのころ、ファリサイ派の人々と律法学者たちが、エルサレムからイエ스のもとへ
来て言った。「なぜ、あなたの弟子たちは、昔の人の言い伝えを破るのです
 か。彼らは食事の前に手を洗いません。」 (마타이による福音書15章1~2節)

例19; それでも洪作は母が滞在している間、学校を引けると、すぐおぬい婆のところへ
は帰らないで、母のいる上の家の方へ行った。(しろばんば)

例20; 「夢の中の女」「秘密の女」朦朧とした、現実とも幻覚とも区別の附かない

Love adventure の面白さに、私はそれから毎晩のように女の許に通い、夜半(よなか)の二時頃まで遊んでは、また眼かくしをして、雷門まで送り返された。
(秘密)

例21; 少し進んで行って、うつ伏せになり、祈って言われた。「父よ、できることなら、この杯を私から過ぎ去らせてください。しかし、わたしの願いどおりではなく、御心のままに。」それから、弟子たちのところに戻って御覧になると、彼らは眠っていたので、ペテロに言われ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26章39～40節)

例22; 吾輩は新年來多少有名になったので、猫ながら一寸(ちよっと)鼻が高く感ぜらるるのは有難い。元朝早々 主人の許へ一枚の絵端書(えはがき)が来た。(吾輩は猫である)

즉, 일본어는, 「行く」「来る」「帰る」「通う」「戻る」과 같은 移動動詞(「行く」類 동사)가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에는 場所名詞가 着点を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직접 결합하지 못하며,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名詞 뒤에 「もと」「ところ」등과 같은, 場所를 나타내는 形式名詞를 넣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어의 특징에 반해 한국어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 名詞 뒤에 붙는 助詞가 달라지는데, 移動動詞가 着점을 나타내는 場所名詞와 결합할 경우, 위의 예1~5에서 보여지 듯 「~(으)로」「~에」라는 助詞가 사용되고, 移動動詞가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경우는 위의 예11~16에서 보여지 듯 「~한테(로)」「~에게(로)」「~께(로)」라는 助詞가 사용된다.)

日本語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 鈴木重幸氏は『日本語文法・形態論』¹⁾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으며

ものや人をあらわす名詞が、場所をあらわす状況語になるためには、「一のなかに」「一のうえに」「一のしたに」「一のそばに」「一のまわりに」のような空間的な關係をしめす形式名詞をそえて、空間化する必要がある。

또, 같은 사실에 대하여 奥田靖雄氏は「を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²⁾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 『日本語文法・形態論』(1972) p.101

2)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1983) p.140

[空間的なむすびつきをあらわす連語では]

かざりになる名詞は場所をしめすものにかざられるが、そうでない名詞がかざりの位置にくるときは、「…のなかを」「…のうえを」「…のあいだを」「…のもとを」というふうには、いちど空間化の手づつきをうけなければならない。

즉, 여기에서 鈴木重幸氏와 奥田靖雄氏が 논한 것을 요약해 보면, 사람名詞는 場所가 아니기에 移動動詞가 직접 結合할 수 있는 空間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지로 위의 예17~22를 보면 「専務さん」「イエス」「おぬい婆」「女」「弟子たち」「主人」이라는 사람名詞가 「ところ」「もと」등의 形式名詞에 의해 空間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移動動詞가 着点を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지라도, 移動動詞가 「近づく」「近づける」「近寄る」「歩みよる」「寄り添う」등과 같은 動詞(「近づく」類 동사)일 때는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아도 된다.

例23; 僕は、あなたを、どうしてあげることもできない。それが、つらさに、僕は、あなたと、おわかれしようと思ったのです。あなたの不幸が大きくなればなるほど、そして僕の愛情が深くなればなるほど、僕はあなたに近づきにくなるのです。

(葉桜と魔笛)

例24; 群衆からも歎歎(きよき)の聲が聞えた。暴君ディオニスは、群衆の背後から二人の様を、まじまじと見 つめていたが、やがて静かに二人に近づき、顔をあからめて、こう言った。(走れメロス)

例25; 相手は何か孤独そうな、刈りそろえたヒゲのある黒い顔を彼に近づけて、聞こうとした。(アメリカン・スクール)

例26; 一同が群衆のところへ行くと、ある人がイエスに近寄り、ひざまずいて、言った。

「主よ、息子を憐れんでください。てんかんでひどく苦しんでいます。」

(マタイによる福音書17章14節)

例27; 私は身をかがめて、彼女の絵具箱を拾い上げた。蓋が開いて、絵具のチューブが二つ三つ、砂利道のうえにこぼれ出ていた。私は絵具箱をぶらさげて、彼女に歩みよった。(鳥獣虫魚)

例28; 「証明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 じゃあ、証明しますよ……」

そう言うと、健助は、いきなりみさ子に寄り添って、両腕の上から相手の身体を強引に抱えこんで、抵抗してのけぞらせるみさ子の顔の上に、自分の顔を無理に押しかぶせていった。(若い川の流れ)

이와 같이 「近づく」類의 동사(近づく·近づける·近寄る·歩みよる·寄り添う 등) 는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아도 되지만, 「行く」類의 동사 (行く·来る·帰る·通う·戻る 등) 는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鈴木重幸氏は『日本語文法・形態論』 p.379의 「動詞のすがた」라는 곳에서 日本語의 移動動詞인 「いく」「くる」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いく」「くる」という移動動作は、動作としては持続的な部分をふくむが、持続的な部分だけあって、目的地に到着するという側面(おわりの部分)がなければ、「いく」「くる」という動きはなりたたないので、これらは継続動詞ではない。

다시 말해, 「行く」「来る」등과 같은 「行く」類의 동사는 動詞가 지니는 어휘적인 의미상 반드시 목적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近づく」「近寄る」등과 같은 「近づく」類의 動詞는 그 나타내는 의미가 移動動作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어휘적인 의미가 목적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시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어에 있어 移動動詞가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 그 어휘적인 의미가 移動의 목적지를 필요로 하는 移動動詞는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를 반드시 空間化해야 하지만, 어휘적인 의미가 目的地를 필요로 하지 않는 移動動詞가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는,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동사가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 着点을 나타내는 사람名詞를 반드시 空間化해야 하는 일본어의 「行く」라는 動詞가 「医師」라는 단어와 결합할 때는,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医師」라는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고 사용되는데, 이것은 「医師 = 病院」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만일 「医者」라는 단어와 같이 사람이 직업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사람이 있는 場所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면, 이와 비슷한 단어로 「検事」「教師」등이 있다. 하지만 이 들 단어는 「行く」라는 移動動詞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空間化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다음 예와 같이 「医者」라는 단어가 移動動詞와 결합할 때 空間化하지 않고 사용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例29; 「ああ、潤子さん」

と、武平はあえぐような声を出した。

「なによ、幽霊みたいな声をして。え、なんですって?」

彼女は武平のとぎれとぎれの報告を聞くと、

「まさか! だってガンって、四十歳過ぎの病気でしょう?」

「いや、ぼくもいろいろ調べたんだが、最近、ガン年齢はどんどん下がっているのだ。子供のガンだって稀じゃないそうだ」

「それであなた、まだ医者に行っていないの?」

「行ってない。行くのがこわい」(奇病連盟)

例30; ガンというものは、それほど怖ろしがられている。

まして武平は悟りなんてひらいていないから、その恐怖たるや大変なものであった。

すぐにも医者にとんでいきたいが、反面、診察されて宣告を受けるのがこわい。そんなことで、武平は医者にも行かず、暗澹たる思いで数日を過した。

(奇病連盟)

例31; 半年程前、うがいをしていたら奥歯の詰め物がコロリととれた。私は驚き、「おお、二十年も前に詰めた物がこうして役目を終えて遂に出てきたか。よしよし、よくがんばった」等とひと通り詰め物に感謝した後、次第に痛みを覚えてきた。

やはり歯医者に行くべきであろう。行くべきなのは分かっているが、心は嫌(いや)だと言っている。しばらく放っておいたらさぞ痛くなるであろう。

そう思いつつしばらく放っておいたので、案の定“さぞ痛く”なってきた。

冷たい物を食べれば「ひい」と叫び、熱い物を食べれば、「おお」と叫ぶ。そのような生活を三週間余り続けてみたが、どうにもこうにも面白くない。私は主人に「歯医者に行こうと思うのだが怖くてなかなか行けない。一体どうすれば良いか」と相談してみた。(たいのおかしら)

또 다른 경우는, 「行く」라는 移動動詞과 着点を 나타내는 사람名詞 사이에, 移動動作의 目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는, 다음 예와 같은 경우에도 사람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아도 되는 듯하다.

例32; ひたすら『永』を練習し、夕方になった。最後にいよいよ先生のところに見せに行つてマルをつけてもらつたりするのだ。

そんな折、一人の初々しい少女がやってきた。少し古い言い回しをすれば『フ

レッシュさん』と言ったところか。そのフレッシュさんは、今日は入門の申し込みにだけ来たらしいが私と一緒に先生にあいさつに行くことになった。

師範の女性に連れられて、私とフレッシュさんは先生のいらっしゃる部屋へ案内された。(たいのおかしら)

例33; 母が病気で死ぬ二、三日前台所で宙返りをしてへっつい角で肋骨(あばらほね)を撲(う)って大いに痛かった。母が大層怒って、お前のようなものの顔は見たくないと言うから、親類へ泊りに行っていた。(坊っちゃん)

3. 사물을 나타내는 名詞(사물名詞)와의 결합

移動動詞가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와 결합할 경우, 다음에서 보여지듯 한국어는 場所名詞와 사람名詞일 때와 같이 그대로 결합을 하여 표현되지만, 일본어는 사람名詞가 着点을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를 空間化解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例34: “예, 축하한다!”

“……그럼?”

“그래, 임신이야. 놀랍게도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몰랐나? 네가 망아지처럼 들뛰며 돌아다니는 데도 아기가 용케 자리를 잡았다 애. 안심해도 돼!”

“버……벌써? 난 입덧도 안 했는데.”

책상으로 돌아가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정란 앞에 웃을 수습하고 앉은 미주의 얼굴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국화꽃 향기)

例35; 미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미주야, 정신차려!”

“왜? 난 네 말대로 하려는 거야. 잠전에 네가 개량 술 마시랬잖아.”

“그만 텐트로 돌아가자. 회장인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니?”(국화꽃 향기)

例36; 승우는 침대 모포를 미주의 어깨까지 다독거리 잘 덮어 준 다음 스탠드 하나만을 켜놓고 큰 불을 켜다. 그리고 더블침대 반대편에 놓인 한 장의 모포를 들고 소파로 가서 앉았다. 승우는 앉은 채로 모포를 덮고 등과 머리를 등받이에 기댔다.(국화꽃 향기)

例37; 그들의 배는 말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찌니라. (룻기 2장 9절)

例38; 「～刈り入れをする畑を確かめておいて、女たちについて行きなさい。若い者には邪魔をしないように命じておこう。喉が渴いたら、水がめの所へ行って、若い者がくんでおいた水を飲みなさい。」 (ルツ記 2 章 9 節)

例39; 「ちょっと、うちに電話を入れておきます」
「うん、それがええ」

梨絵は立ちあがって、部屋を出、廊下の公衆電話のところへ行った。十円玉を入れて、ちょっと震える指でダイヤルを回した。(水中花)

例40; 暗い湖のへりを、急ぎ足で辿って行くと、あ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が見えて来る。もちろんもう閉まっているけれど、そのわきに、二台並んだ赤電話の所だけが、明るい。

私は、スラックスのポケットを探った。確か、小銭が入っていたはずだ。十円玉が一つ。——かけそこなったら、おしまいだ。

まだ、あのメモはくしゃくしゃになって、ポケットに入っていた。私は、赤電話の所へ行って、メモを開げた。(早春物語)

例41; 大塚が笑っているときに、径子が、前の椅子に坐るために近づいてきた。が、ふと、大塚の投げ出している素足を見ると、

「爪が伸びていますわ」

と自分のスーツ・ケースのところに引返した。径子のすなりとした姿は、宿の着物を着てもよく似合った。径子は、大塚の足許にしゃがんで、紙をひろげ、爪をきりはじめた。(霧の旗)

例42; 「はい、たしか、そこにあるブナの大木は田代温泉へ行く道の右側にあったものだ覚えてます」

進藤特務曹長はブナの方に小型提灯を向けたがブナは吹雪にかくれて見えなかった。

「行って確かめて来い。もしそのブナが田代温泉へ行く道の途中にあったものらば、田代までお前が案内しろ」

進藤特務曹長は深雪の中をブナの木のところまで戻って、木に小型提灯の光を当てた。積雪は数メートルあるから、ブナの大木の幹は雪に埋まっていたが、枝が何本か雪の中から出ていた。(八甲田山死の彷徨)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가 移動動詞와 결합한다 할지라도, 移動動詞가 「近づく」類의 動詞일 때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이들 動詞가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와 동일하다.

例43; 僕は管理人の言葉が聞えないふりをして、水槽に近づいた。タイルが淡く変色している水槽の縁に両手を支えて、僕はアルコール溶液に浸っている死体の群がりを見た。(死者の奢り)

例44; <えぞっこ>と白く染めぬいたのれんと、赤や青のスタンドグラスの引戸が、妙にアンバランスでいて、結構バランスのとれているのがおもしろいと洋吉は思った。

「おでんがうまいですよ」

教頭が先に立って戸に近づくと、スタンドグラスの引戸は、自動ドアですっと片側に開いた。(残像)

例45; 不意にドアが開き、検温器を幾本も入れた筒を手にして、看護婦が部屋にはいつて来た。彼の表情が少し動いた。看護婦は一本の検温器を取って彼に渡し、彼のその同じ手を軽く握って脈を診た。この看護婦はいつも怒ったような顔をしていて、余分な口を利かなかった。それでも彼の脈を取り終って表に記入すると、窓に近づいてそれを開き、それから素早く部屋を出て行った。(飛ぶ男)

例46; 「しようがない。とにかくやるよ」

私は苦笑しながら言った。江口君子の使っていた机に近寄り、引出しをあけてみた。しかし、そこはもちろん、警察が調べたあとなのだろう。変わったものは何もなかった。(二人で殺人を)

그런데, 日本語에 있어서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가 「行く」類의 動詞와 결합할 때는 사물名詞를 空間化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에서 보여지듯 着点을 나타내는 사물名詞를 空間化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例47; 「あのときはどうも……」

本川はてれたように言った。「予想以上に謝礼をもらって……」

謝礼がいくらだったかを、私は知らない。私の関係したのは、最初にフィルムを受けとり、名刺を渡したことだけだった。しかし、それにしても、私を知っている人物に、こんなところで会うとは……。

「弱ったなあ」

と私は言った。「正体を見破られるとは、考えてもみなかった」

「すると、やめたんではないんですね? どうもおかしいと思った」

私は、ゆっくり部屋の中を歩いた。ドアまで行って、誰かに立聞きされていないかを、念のために調べた。(二人で殺人を)

例48; 「君はまた早起きなんだね。」

「昨夜(ゆうべ)眠れなかったのよ。」

「時雨があったの知ってる?」

「そう? あすこの熊笹(くまざき)が濡れてたの、それでなのね。帰るわね。もう一寝入り、お休みなさいね。」

「起きるよ。」と、島村は女の手を握ったまま、勢いよく寢床を出た。そのまま窓へ行って、女が搔き登って来たというあたりを見下すと、灌木類の茂りの裾に熊笹が猛々しく拡がっていた。(雪国)

例49; 学芸欄に目をやりながら、弘子は肩すかしをくわされたような気がした。摩理のところにいるとばかり思っていたが、あれからすぐに帰ったのだろうか。しかし、階段をあがる足音も、不二夫の部屋の前を通る足音も聞かなかった。

その時、バスタオルを肩にかけ、パンツ一つの栄介が風呂から出てきた。

「おや、お風呂だったのかい」

勝江はちらりと栄介を見た。ぐいと、冷蔵庫のドアをあけ、ビールを一本ぶらさげた栄介は、ソファにきてすわった。(残像)

例50; 準次は、思ったより早く役目が終わったので、ほっとしながら部屋へ入った。だ

が、壁のところでは、相変わらず先刻の人々がいて、無言で忙しげに手を動かしていた。

「もうええんや」と善やんは、準次の視線を制するよにいまましげに云った。

「あんなやつら、放つといた方がええんや」

そして善やんは、打ちしおれた恰好で、準次を振り返りもせず、自分のベッドの方へ歩いて行った。

準次は、何かから解放されたように、自分のベッドへ帰った。(神の道化師)

4. 마치며

지금까지 논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의 경우 모든 移動動詞가 着点を 나타내는 場所名詞와 결합할 때는, 그 표현 방법이 「場所名詞+助詞+移動動詞」로서 장소명사를 공간화할 필요가 없지만, 移動動詞가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名詞와 결합할 때는, 「行く」類의 이동動詞와 결합되는 사람명사는 「もと / ところ」와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形式名詞를 사용하여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명사를 반드시 공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近づく」類의 이동動詞는 着점을 나타내는 사람명사를 공간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은 「近づく」類의 이동動詞의 특징은 사물명사가 着점을 나타낼 때도 동일하며, 「行く」類의 이동動詞가 着점을 나타내는 사물명사와 결합할 때는 사물명사를 공간화해도 공간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着점을 나타내는 것이 장소명사이던 사람명사이던 사물명사이던지 간에 이들 명사가 이동동사와 결합할 경우, 이들 명사를 공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어는 일본어와는 달리 이동동사가 着점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될 때, 着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 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달라진다. 즉, 장소명사일 경우는 「~에 / ~(으)로」이고, 사람명사일 경우는 「~에게(로) / ~한테(로) / ~께(로)」이며, 사물명사일 경우는 「~(으)로」이다.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어의 경우 】

이동동사의 종류	移動動詞	
	【「行く」類 動詞】 行く・来る・帰る・通う・戻る・引き返す 등	【「近づく」類 動詞】 近づく・近づける・近寄る・歩み寄る・寄り添う 등
着点명사의 종류	뒤에 붙는 조사	
場所名詞	~ / ~に	공간화를 할 필요가 없음
사람名詞	~에게 / ~한테 / ~께	공간화를 할 필요가 없음
사물名詞	~(으)로	반드시 공간화를 해야 함
		공간화를 해도, 하지 않아도 됨

【 한국어의 경우】

着点명사의 종류	뒤에 붙는 조사	移動 動 詞
場所名詞	~에 / ~(으)로	어떠한 명사가 되었는지 간에 모든 이동동사와 결합할 때 명사를 공간화를 할 필요가 없음.
사람名詞	~에게(로) / ~한테(로) / ~께(로)	
사물名詞	~(으)로 / ~에	

【参考文献】

- 言語学研究会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p.140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p.101, p.379
 高橋太郎(1994) 『動詞の研究』, むぎ書房,

【出典一覽】

(日本語 例文 出典)

- 赤川次郎 『早春物語』 (角川文庫・昭和六十年・初版)
 五木寛之 『水中花』 (新潮文庫・昭和五十七年・印刷)
 石坂洋次郎 『若い川の流れ』 (角川文庫・昭和五十三年・三十九版)
 井上 靖 『しろばんば』 (新潮文庫・平成二年・五十五刷)
 大江健三郎 「死者の奢り」 『死者の奢り・飼育』 所収・新潮文庫・平成三年・四十九刷)
 川端康成 『雪国』 (新潮文庫・昭和六十二年・百三刷改版)
 北 社夫 『奇病連盟』 (新潮文庫・昭和五十七年・十八刷)
 小島信夫 「アメリカン・スクール」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 所収・新潮文庫・1977・2刷)
 さくらももこ 『たいのおかしら』 (集英社文庫・2003年・第1刷)
 佐野 洋 『二人で殺人を』 (角川文庫・昭和五十年・三版)
 椎名麟三 「神の道化師」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昭和(下)』 所収・新潮文庫・1977・2刷)
 太宰 治 「走れメロス」 (『走れメロス』 所収・新潮文庫・昭和五十四年・二十五刷)

太宰 治 「葉桜と魔笛」(『新樹の言葉』所収・新潮文庫・昭和六十二年・九刷)
谷崎潤一郎 「秘密」(『刺青・秘密』所収・新潮文庫・平成元年・三十九刷)
夏目漱石 『吾輩は猫である』(新潮文庫・平成十六年・六刷)
夏目漱石 『坊っちゃん』(集英社・1991年・1刷)
新田次郎 『八甲田山死の彷徨』(新潮文庫・昭和五十三年・二刷)
福永武彦 「飛ぶ男」(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昭和(下)』所収・新潮文庫・1977・2刷)
松村清張 『霧の旗』(新潮文庫・昭和五十二年・十七刷)
松村清張 『聞かなかった場所』(角川文庫・昭和五十年・七版)
三浦綾子 『残像』(集英社文庫・昭和58年・第20刷)
三浦綾子 『広き迷路』(新潮文庫・昭和六十三年・七刷)
吉行淳之介 「鳥獣虫魚」(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昭和(下)』所収・新潮文庫・1977・2刷)
日本聖書協會 『新約聖書』(1990年・新共同訳)

(韓国語 例文 出典)

김하인 『국화꽃 향기 1·2』(생각의 나무)
심 훈 『상록수』(하서출판사·하서명작선3)
이드보라 『소돔같은 거리에도』(예찬사)
조창인 『가시고시』(밝은세상·2000년)
지수현 『내 이름은 김삼순』(도서출판 눈과 마음)
『관주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개역 한글판·1956년)

要 旨

この論文は、日本語と韓国語において、着点を表す名詞（着点名詞）が移動を表す動詞（移動動詞）と組み合わせる時に表される特徴を、日本語と韓国語で書かれた作品の中の実例をもとにして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特に着点を表す名詞を場所である場合（場所名詞）と、人である場合（人名詞）と、ものである場合（もの名詞）とに分けて、これらの名詞が移動動詞と組み合わせる時に表される特徴を、日本語の場合と韓国語を比較しながら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移動動詞、着点、空間化、場所名詞、人名詞、もの名詞、助詞の種類

투 고 : 2007. 2. 28
1차 심사 : 2007. 3. 10
2차 심사 : 2007. 3. 31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3-229-8346/019-475-3338
e-mail : immanuel@cju.ac.kr